

# 문화로서의 자연

##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구축하기

### 생태마을의 확산:

DMZ를 포함한 전국에 생태마을이 확산되어, 사람들이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 자급자족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탄소중립 실현: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공동체 경제:

마을 공동체 간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을 장려하는 공동체 경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DMZ 브랜딩하기

### DMZ 자치권 확립: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모델을 구축합니다.

### DMZ 클라우드 구축:

DMZ 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와 교육을 활성화합니다.

### DMZ 메타버스 구현:

가상 공간에서 DMZ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입니다.

### DMZ 수호자 브랜딩:

DMZ를 수호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브랜드 파워를 활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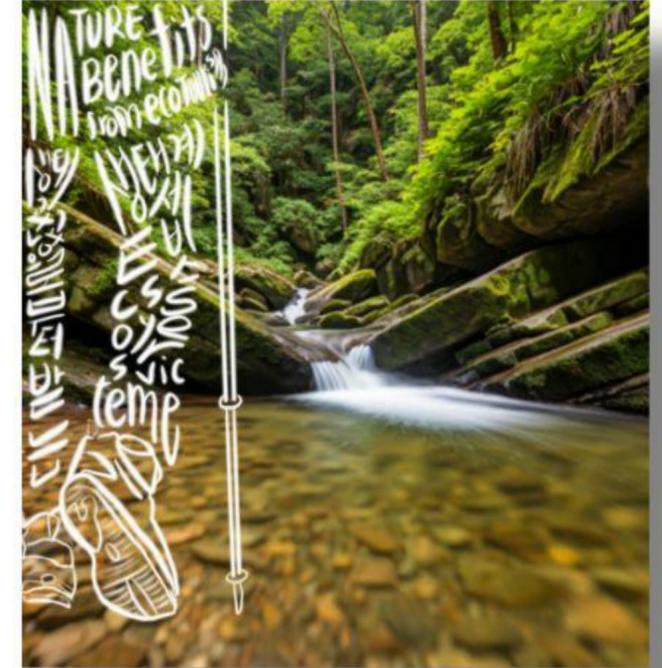


## 생태관광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 증진

DMZ 생태관광 활성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품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DMZ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DMZ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멸종위기종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합니다.



## 지식의 확산과 생태적 의식 함양

### 생태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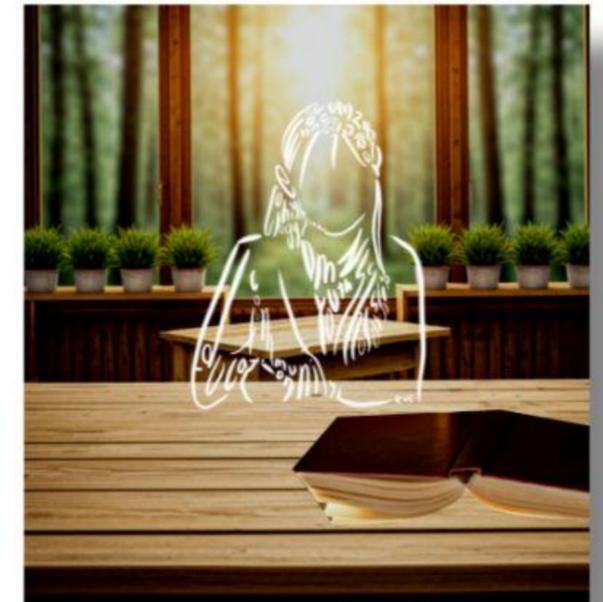
초·중·고등학교의 생태교육을 강화하고 생태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 DMZ 연구 활성화:

DMZ의 생태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학제적 연구를 활성화합니다.

### 시민과학 장려:

시민들이 직접 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시민과학 활동을 통해 생태 보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입니다.



# Nature as Culture

## Creating a sustainable village community

### Spread of Eco-Villages:

Eco-villages will spread across the nation, including the DMZ, enabling people to live self-sufficient lives utilizing natural energy sources.

###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using 100% renewable energy, carbon emissions will be reduced and quality of life will improve.

### Community-Based Economy:

A community-based economic system will be established where resources are shared and cooperation is encouraged among village communities.



## Branding the DMZ

Establishing a DMZ Autonomous Region: we will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from local residents and establish a development model tailored to the region's unique characteristics.

Building a DMZ Cloud: We will establish a digital platform in the DMZ to facilitate information sharing and education.

Implementing a DMZ Metaverse: We will enhance accessibility by allowing people to experience the DMZ in a virtual space.

Branding with the DMZ Guardian Theme: We will create a character to protect the DMZ and leverage it for branding power.



## Promoting Ecosystem Services through Eco-tourism

### Promoting Ecotourism and Conserving Biodiversity in the DMZ

By developing ecotourism programs and local products, we will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protect the DMZ's unique ecosystem. We will designate the DMZ as a protected area and restore endangered species to enhance biodiversity.



## Spread of knowledge and fostering of ecological consciousness

### Strengthening Ecological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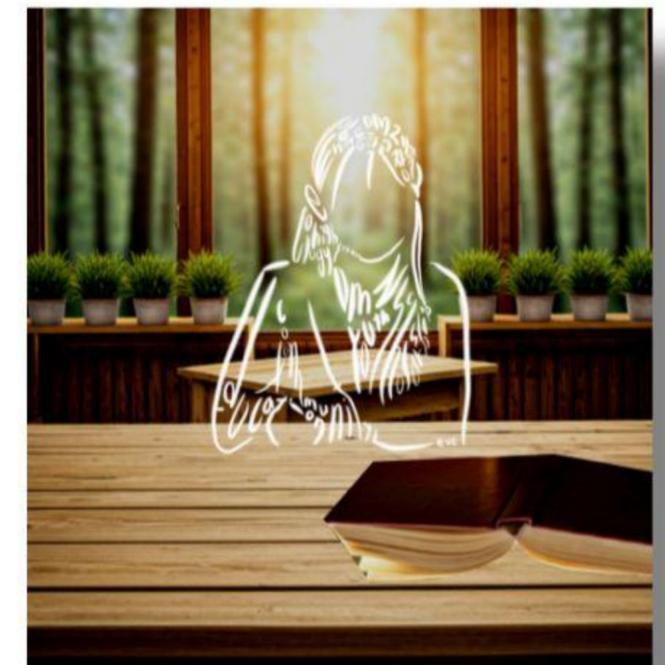
We will strengthen ecological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establish ecological high schools to cultivate specialized personnel.

### Activating DMZ Research:

We will activate multidisciplinary research on the DMZ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its eco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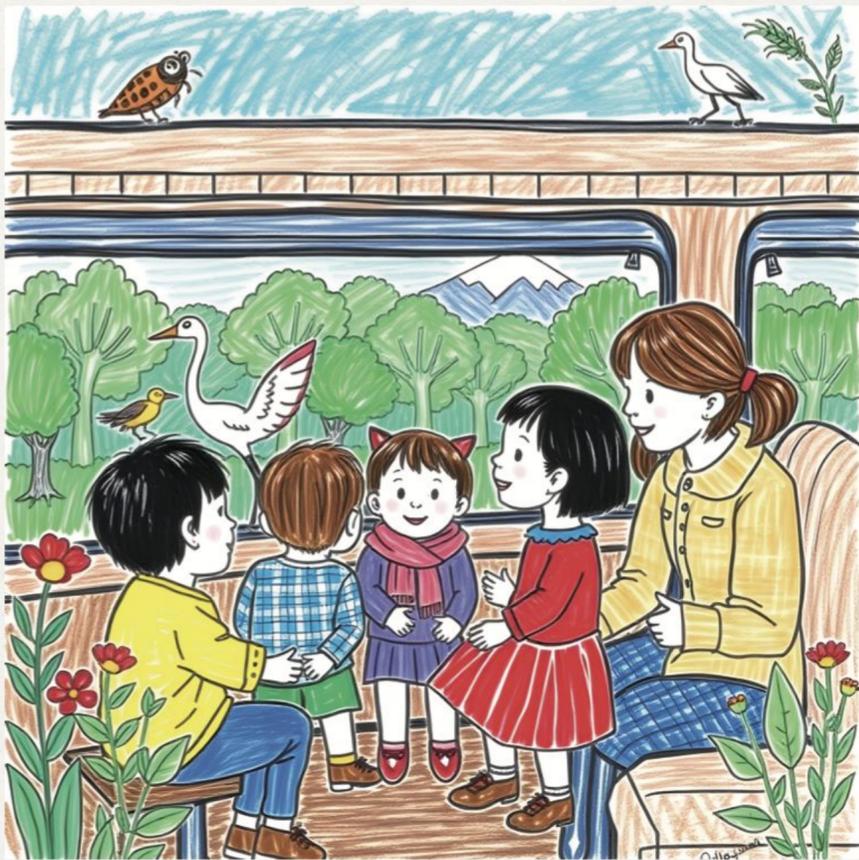
### Encouraging Citizen Science:

We will enhance public interest in ecological conservation through citizen science activities where citizens directly participate in scientific research.



# 사회를 위한 자연 Nature for Society

2034년 4월 5일  
하니랑 두루미랑 봄 산책



오늘은 소풍을 갔다. 캐릭터 두루 앞에서 V 하고 사진을 찍었다. 두루는 두루미 새다. 기차를 탔는데 진짜 두루미는 멀리 있었고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서 섭섭했다. 초록색이 엄청 많았다. 노루도 보았다.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곤충도 많았다. 새소리가 예뻐서. 현우가 선생님께 동물과 식물들 이름을 계속 물어보았다. 호기심 많은 현우는 나중에 커서 생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 점심으로는 산에서 뜯어온 산나물 무침과 된장찌개가 나왔다. 산나물 무침 안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눈개승마와 금취 두부가 들어있었다. 눈개승마랑 금취는 봄에만 나는 제철음식이라고 했는데 부드럽고 맛있었다.



극장 같은 곳에서 고글을 쓰고 영상을 보았다. 두루가 나와서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했다. 곤충, 풀, 동물 친구들이 자기 이름도 얘기하고 좋아하는 것도 말해주었다. 두루와 친구들이 이곳에 살 수 있어 행복해 보였다. 친구들도 많아서 심심하지 않을 것 같다.

## 2034년 6월 28일, 은호의 여름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학교 요리의 날**이다. 우리 반 텃밭에서 자란 작물들을 재배해 친구들과 같이 요리해 먹는 하루다. 이번 달에는 토마토와 감자를 섞어짓기하는 농사실험을 했는데 두 작물이 모두 잘 자랐다. 현상이에 모듬은 당근을 심고 라미네 모듬은 가지와 버섯을 길렀다. 옆 반에서 심은 붉은 호박과 호박잎을 얻어오고 우리 식재료들도 나눠주었다



우리가 키운 가지, 버섯, 당근, 감자, 호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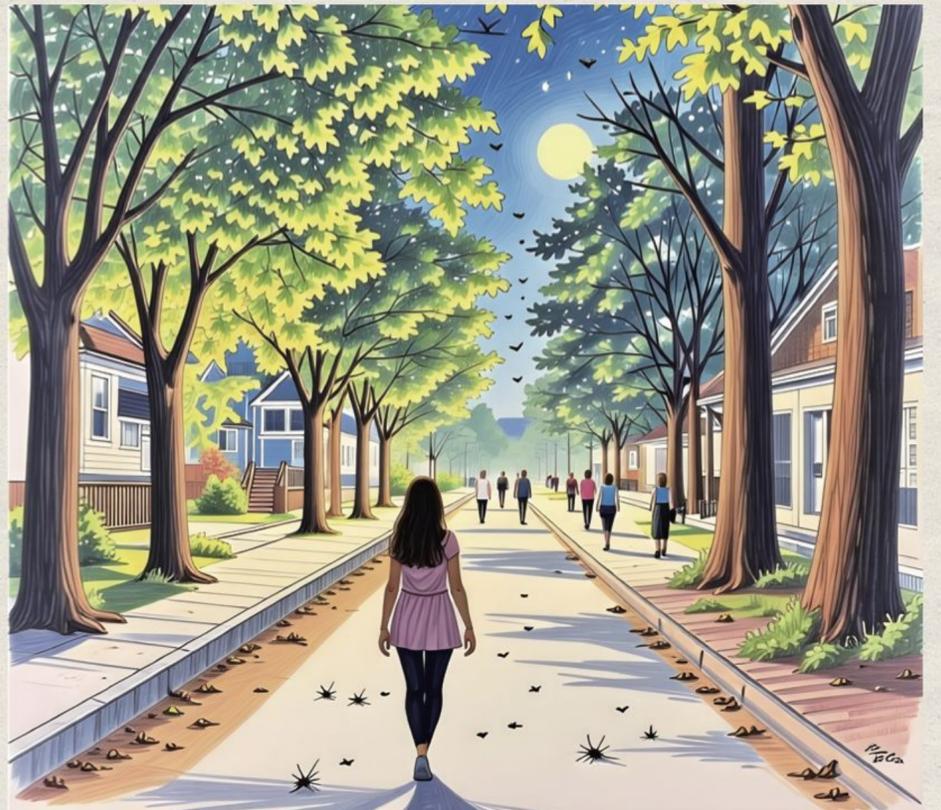
오늘 메뉴는 카레라이스, 들기름가지볶음, 편 호박, 호박잎이었다. 우리반 학급회의에서 학교 요리의 날 메뉴를 채식 식단으로 짜보자는 건의가 받아들여진 후 벌써 4번 째 시행하는 날이다. 대부분의 채소는 직접 기른 텃밭에서 가져오다보니 자급자족하는 기분이 들고 채식 식단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무엇보다 생산과정과 요리과정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작물들을 비롯해 먹는 것과 얽혀 있는 많은 관계와 사람들,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느낀다. 나의 선택과 행동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친구들과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 주제탐구 프로젝트**에서 파티시와 농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니터링**, **식품폐기물**에 대처하는 생산자의 주체성에 대해 탐구해보기로 했다. 어떤 분을 인터뷰할지, 조사 내용은 역할극/퀴즈/뉴스 형식 중 어떻게 표현할지 등에 대한 설정과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번주에 여정 할머니의 손녀를 도와주러 봉사를 가는데 농부인 할머니를 인터뷰해야겠다. 20살 때 남편과 함께 귀농하시고 농사를 지어오면서 연금이 지긋하신 농부분들 뿐 아니라 새로 오는 청년농부들도 교류를 많이 하신다. 그것에도 할머니와 제철 식재료들에 대해 많이 대화해왔지만 이번에는 진정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될 것이다.

## 2034년 7월 28일, 한여름 무더위의 사랑의 일기



오늘 DIVERcity 플랜리 동아리 대면 모임에 갔다 왔다. 요즘 모으려 주축하는 주체는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주권이다. 내가 속한 곳을 비롯해 국내 농업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친환경 농업이 다양해지고 소규모 농사를 직장과 병행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이번 여름 폭염과 태풍을 겪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식량위기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 대해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법안부터 스마트팜이 식품사막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빈 가수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환경영향제 음모작 제출이 2달 정도 남았는데 오늘도 다뤄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다.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을 기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것이 목표다.



저녁에는 집 앞 가로수길을 산책했다. 나무들 하나하나 모습이 다르고 건강해 보였다. 벌써 내일이 휴일이라 학교에 출근해야 된다. 이번 달에 가르치고 있는 단원은 한국 전쟁인데 구한민 연 구는 전쟁의 원인과 영향을 배운 학생들이 궁금한 주제를 조사해 발표를 하는 날이다. 역사 선생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치우치지 않게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담은 발표를 들려줄 때면 감탄하게 되고, 큰 보람을 느낀다. **전쟁에 대한 목소리**를 탐구하기, **국내의 DMZ처럼 전쟁을 기억하는 장소**를 해외 사례 찾기, 한국 전쟁으로 인한 이주가 음식 문화에 미친 영향 등 나도 모르는 내용들이 정말 많다. 학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소통 덕분에 나도 멈추지 않는 기분이 든다. 산책을 하며 오늘 밤도 나를 돌아보며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동네 젊은 농부가 준 키워물



2034년 10월 17일  
여정의 가을 하루

드디어 기다리던 배 수확시기가 왔다. 내가 젊은 때만 하더라도 농촌에 청년층이 없어서 일손이 부족했다. 그래서 추수 시기에는 늘 걱정이 많았는데 워케이션으로 우리 마을을 찾아 정착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젊은 친구들의 아이디어는 볼 때마다 신기하다. 스마트팜으로 우리 마을에서 키워 농사도 짓고 자연에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가르치는 대안학교도 생기고... 이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자 보니 근래 10년 간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늘 할 일

0 돌보이 서비스로 스마트팜  
설치 신청

손녀 하나가 와도 왜밖에 개발이 안 된 동네다 보니 어디 두어시간이라도 잠시 나갔다 몰라치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열 집 뽐뽐해서 말기러 하더라도 내 걸음으로 30분은 가야했는데... 최근에는 무인버스가 생기면서 뽐뽐해서 10분이면 간다. 그리고 인터넷이든 전화든 돌보이 서비스 신청만 하면 동네커뮤니티에서 자원 봉사하는 여권 학생들이 우리 집까지 와준다. 옛날에는 DMZ 개발이다 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여서 나고 자란 나로서는 이런 변화가 반갑기 그지없다. 전에 비해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만나면 서로 미소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니 마을 자체에 활력이 생겼다. 지금까지의 우리 마을도 좋지만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된다



2034년 12월 8일  
용복의 눈오는 겨울

아침에 옆 집 여정 할매가 내게 잠시 말린 손녀 하나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니 창밖에 눈이 소복히 쌓여있다. 24년만 하더라도 이상기온이다 뭐다 해서 추석에도 한여름처럼 덥더니 최근 몇 년 동안은 날씨가 많이 좋아졌다. 하녀에게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 시금치 케사다야가 먹고 싶단다. 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라 딸말에게 물어보니 금새 요리법을 알려준다. 갓 딴 초록잎 야채가 필요하니 창고에 간다. 옛날 같았으면 동네 슈퍼까지 가서 사와야 했지만 지금은 '다음에서 지원해준 가정용 스마트팜이 있으니 먹고싶을 때는 언제든지 따다 먹을 수 있다.



산길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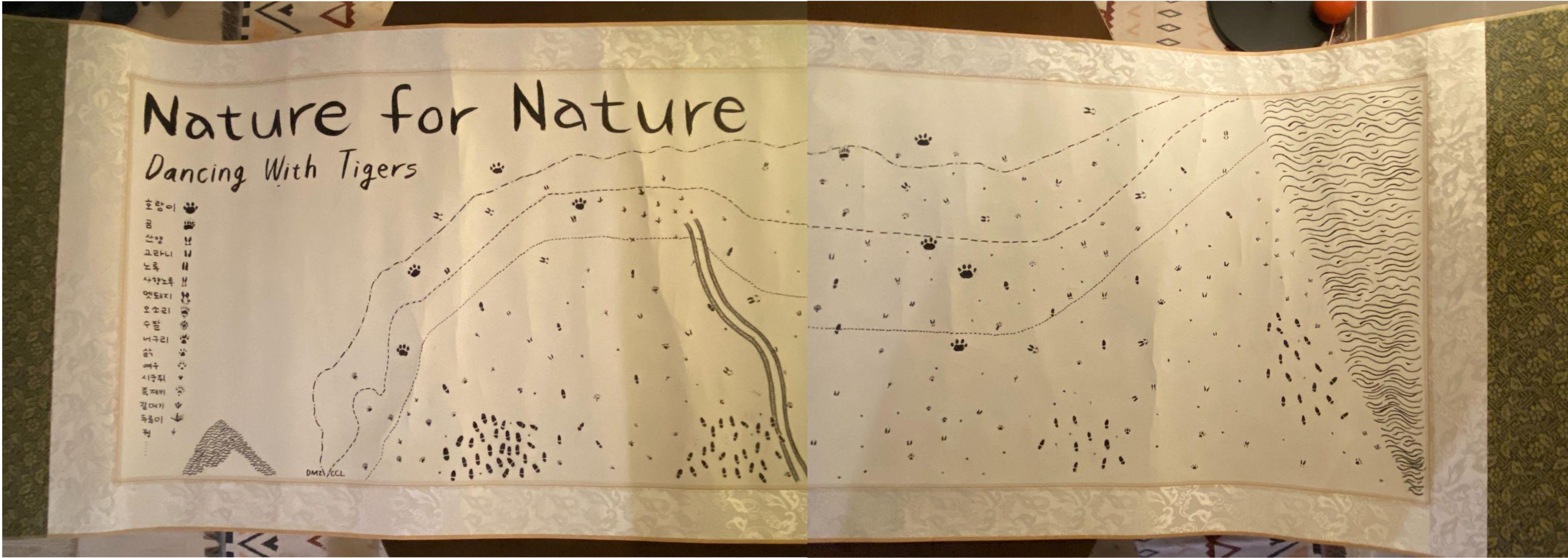
오후에는 여정씨가 하나를 데리고 돌아가자마자 나는 나갈 준비를 한다. 눈오는 겨울에만 열리는 '두루와 함께하는 눈꽃여행'에서 내가 길잡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하얀 눈으로 덮인 산길을 거닐며 감탄을 내뿜는다. 오늘은 운이 좋게도 사향노루가 나와 사람들을 반겨준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입가에 띠 미소와 내년 봄에 또 오자! 라는 말이나의 하루를 아름답게 한다.



"스마트팜으로 키운 식물로 만든 나의 첫 케사다야"



# Nature for Nature 자연을 위한 자연



## Nature for Nature – Dancing With Tigers

DMZ의 ‘자연을 위한 자연’의 비전 표현하기 위한 내러티브 제목은 “Dancing With Tigers” 입니다. 이 내러티브는 1) 대형 포유류의 회복, 2) 보호지역 30% 확대, 3) 오염 행위가 통제되는 청정한 생태 평화 공간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주제들은 모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얽히어 작용합니다. 이 내러티브 안에서 DMZ는 생태와 생명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회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온전하게 공존하며 모든 오염 행위가 통제되는 청정한 생태 평화 공간입니다.

먼저, 대형 포유류의 회복에 대해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포유류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러한 최상위 포식자들의 먹이망이 확보되었으며, 대기, 물, 토양 등 여러 물리적 환경의 회복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DMZ의 안정적인 자연생태계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게 되며 멸종위기종과 이들의 서식지를 충분히 보호, 복원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 연구, 기술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생태계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엄격한 보호지역 확대 정책과 제도도 마련되고요. 그런데 호랑이가 복원될 정도라고 하면 DMZ에서 보호지역이 조금 확대되는 길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우리나라 호랑이인 시베리아 호랑이의 영역은 서식 밀도에 따라 그 면적이 달라지긴 하지만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3개 도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 면적의 약 5배 정도입니다. 서식지 연결성 회복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겠지요. 따라서 대형 포유류의 서식지 복원을 위해 DMZ를 중심으로 북한은 물론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주변 지역들은 생물다양성협약 등 유엔환경계획을 통한 국제적인 교류를 이어가게 됩니다.

보호지역 확대는 DMZ 생태계 전체의 건강과 온전성을 지켜 야생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자연 내 모든 생물이 조화롭게 살기 위한 다양한 자연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깨끗해진 물, 대기, 토양 등의 환경은 각종 질병을 사라지게 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회복시켜 이에 따라 정부의 관련 공공부문 지출도 감소합니다. 또 자연생태계의 회복 과정에서 대형 포유류가 등장함으로써 먹이사슬 내 하위 동물들의 개체수가 조절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농약,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많아져 친환경적 농업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오염 물질 감소로 인한 어류 생태계의 증진과 생물다양성 증가도 일어납니다. 생물다양성의 증가, 특히 호랑이와 같은 동물들의 등장은 문화적으로 지역 생태 문화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청정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은 야생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채집 활동을 하여 자급 자족적 삶을 이어갑니다. 이는 지역의 자연을 속속들이 아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DMZ 자연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그곳을 외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국내외에서 사람들이 DMZ로 모여들게 되며 친환경 투자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투자 사업의 대상은 생태 관광뿐만 아니라 회복된 자연 그 자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친환경 농업, 주민들이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며 마련한 다양한 산물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DMZ는 친환경 그룹의 청정지역 투자에 대한 훌륭한 선례를 남기며 생물다양성과 저탄소 관련 무역 활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회복된 자연의 혜택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인간들은 이러한 마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오염 행위를 통제하는 오염 제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많은 지역을 자연생태계로 보존,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정주 공간은 매우 밀집된 형태로 변모합니다. 이 공간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미기후 조절이 가능하여 기후변화 적응력을 갖추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오염 제로 마을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정책, 기술 측면에서의 다양한 노력을 이행합니다. DMZ 마을에서는 플라스틱이 없어지고, 쓰레기는 최소화되며 청정 교통수단과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제도, 그 관련 기술들이 개발되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정연료를 사용한 드론 기반의 다양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흙, 목재 등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건축물을 만듭니다. DMZ의 마을은 자연 친화적인 정주지 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자연이 온전히 공존하는 청정한 생태 평화의 공간인 DMZ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제도는 DMZ 땅 전체가 생태법인 격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이곳에 사는 모든 생물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꾸려져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게 되었고 이로써 DMZ는 인간과 자연의 중립지역이 됩니다.

DMZ는 자연 중심의 인간 관리에 있어 변혁적 힘을 보여주는 증거로 부상하며 생태와 평화에 대한 진정한 중립지역으로 거듭납니다.

- 1) 자료(족자 그림)를 보시면 호랑이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의 발자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주요 먹이인 사슴, 멧돼지 등도 찍혀있고, 산양, 고라니, 사향노루 등과 같은 우제목목도 포함해 다른 포식자인 담비나 수달 등도 볼 수 있습니다.
- 2) 자료(족자 그림) 내 자동차 바퀴 자국을 통해 표현. 바퀴 자국은 여러 곳으로 나 있지 않고 매우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상징적으로 단 하나만 드러내었다. 야생 자연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바탕이 된 생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자료(족자 그림) 내 발자국이 밀집되어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산이 있는 한반도 동쪽 백두대간 지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서 인간의 발자국은 주로 서쪽에 많이 찍혀있다.
- 4) 자료(족자 그림) 내 인간의 정주지 부분을 보면 별다른 바퀴 자국이나 굴착기 같은 대형 건설기계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 자연을 위한 자연 - 문화로서의 자연 Nature for Society - Nature as Culture



01. 2050년 자연과 인간사회, 동물이 조화를 이루는 DMZ전경  
적극적으로 복원된 생태계 속 자연에 포함된 낮은 도시 경관을 보인다. 이들은 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탄소제로 시스템의 생태마을이다.



02. 지속가능한 생태마을과 생활  
울창한 숲 가운데 위치한 생태마을은 태양광패널, 이끼패널, 풍력, 수자원,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탄소제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축물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도 포함한다. 사람들은 자연친화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간다.



### 03. 건물과 공간에서 자연과의 조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설계된 건물은 재활용 또는 자연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만들어진다. 건물 공간에서도 자연과 생태를 가깝게 접할 수 있다.



### 04. 아이들의 생태현장체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동물과 야생 숲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과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된다. 이는 공존과 조화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스트레스, 불안과 경쟁, 우울과 폭력 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



#### 05.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녹색일자리 증가

수직정원관리사와 같은 친환경 일자리,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직업의 수요가 늘어 청년실업이 줄어든다. 노년세대 역시 숲 해설사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활동적인 일상을 보낸다.



#### 06. 기술 발전과 어우러진 삶

기술은 순환경제를 촉진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돕는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노동력을 대체하고 장애로 인한 불편을 없애며 삶의 질을 높여 조화로운 삶을 지원한다.



### 07. 성숙한 시민의식과 풀뿌리 민주주의

조화와 공존의 가치관을 가진 시민들로 한국은 배려와 이해, 이타심,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한다. 시민의식의 성장은 정부로부터 풀뿌리로 사회권력 이동을 가져온다. 시민들은 국회 앞에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정부와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 08. 미래 국회 건물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유기적 곡선 형태의 건물 상단은 개폐 가능한 돔 형태로 공기의 순환을 돕고 냉난방 및 환기 부하를 절감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외에도 빛이 지하 공간에 들어오게 하는 방안, 외벽에 재활용 소재를 이용하는 방안 등이 국회 설계에 활용되었다.